모든 수행자들이여, 일체중생을 구하라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㉓ 유마경(維摩經) 1

〈유마경〉은 부처님 당시 최대 상업도시인 바이살리(Vaisali)를 무대로 펼쳐지는 재가불자인 유마거사와 부처님제자 33인들과의 토론과 침묵, 그리고 법문을 다룬 경전이다. 유마는 누구 길래 부처님의 제자와 법거량을 할 수 있었을까하는 생각해본다. 부처님 경전에 등장하여 설법을 한 승만이나 유마거사는 두 말할 것 없이 인격과 덕행이 뛰어난 인물이다. 유마의 삶에서 가장 잘한 일은 첫째는 한량없는 부처님께 언제나 공양을 올려 선근(善根)을 깊이 심어 이타행(利他行)을 잘 한 것이다. 모든 생명들에게 생존에 관한 공양물은 물론이고 진리의 가르침을 공양하고 봉사와 선행으로 열심히 남을 이롭게 하는 수행을 한 것이다.

두 번째는 생멸이 없는 진리를 얻어 그 진리를 전하는 방법이 남달랐다는 것이다. 중생들의 그릇을 알아보는 지혜를 갖춰 그에 합당한 설법을 함으로 유마는 복덕과 지혜를 갖춘 인격자로 등장한다. 불교적 인격자가 되기 위해선 지혜와 방편과 원력이 있어야 하는데 유마는 이것을 완전히 갖춘 재가자의 모습을 다 지닌 분이다. 유마는 청정한 이름, 무구칭(無垢稱)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는 바이살리 성의 재벌그룹의 총수였다. 항상 불교수행을 철저하게 하여 계율과 선 수행으로 이미 한 소식한 분이다. 본래 도인은 시크한 면이 많은데 유마는 아주 당당하여 누구라도 잘못된 수행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가르쳐 정법 속으로 인도했다. 언제나 사람들과 사교성도 깊어 잘 사귀고 토론하기를 즐겨했다고 한다. 그러나 유마는 허구의 인물이라는 말도 있다. 부처님 제자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답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공부가 향상시켜주는 역할과 보살도의 실천에 대한 평등을 나타내는 불이사상(不二思想)을 알게 하기 위해 등장시킨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유마는 우리를 돕기 위해 나타난 대승보살의 화현으로 본다.

〈유마경〉은 한글대장경 제 57책 〈유마힐소설경〉, p25와 제 247책 〈대승입릉가경〉속에 p281 〈유마힐경〉으로 3회 14품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대중들에게 인기있는 경전이라 한글로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매우 많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읽다가 알게 된 사실은 〈유마경〉이 희곡, 연극의 대본을 보는 느낌이란 점이다. 서론에서 보적의 스토리와 십대제자들의 절절한 사연 속에 대승보살로 나아가 도록하는 방향전환이라든가. 미륵보살의 수기와 관련된 이야기, 광염동자, 게다가 마왕 파순이 등장하는 〈불국품〉, 〈방편품〉, 〈제자품〉, 〈보살품〉이 4품은 너무 드라마틱해서 즉시에 공연을 올려도 될 만큼 아주 재미있다.

본론에 해당하는 유마의 병에 관한 스토리가 전개되며 부처님 당시 가장 지혜로운 유마와 문수와의 만남을 통해 유마가 문수를 손님으로 맞이하는 장면에서 1차 법거량이 일어나고 다시 병에 대한 문수의 질문과 유마의 답변 5가지를 통해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중생이 아프고 괴로운데 내가 어찌 행복할 수 있는가"는 중생교화를 위한 길을 열어 보인 〈문수보살문질품〉, 신통은 지혜의 증장과 비례하니 지혜와 선정을 밖에서 찾지 말라는 가르침이 담긴 〈불가사의해탈품〉, 어떻게 정진하여 선정에 몰입할까에 대한 논의와 중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논하는 〈관중생품〉, 보살은 어떻게 성불하는가에 대해 중도적 삶에 대한 가르침을 〈불도품〉에서 심도있게 들어가고, 어떤 방법으로 도를 깨우칠 것인가에 대해 33명의 보살들과 불이사상을 논하고 유마가 침묵하는 모습 속에서 법의 길에서 안목이 높아지는 〈불이법문품〉과 점심공양을 먹고 논의를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다 유마가 향적국(香積國)에 가서 남은 밥 가져 올 이를 찾았지만 누구도 가려는 이가 없자 스스로 변화보살을 시켜 42억 항하사 국토를 지난 곳에 가서 공양을 가져오게 하는 〈향적품〉까지 본론을 보며 유마의 정신세계 속으로 무난히 우리도 입성하게 된다. 결론은 정토의 보살들이 예토의 공덕행으로 진정한 불국토 건설의 의미와 그 곳에 살고 계시는 여래, 부처님을 보고자 하면 중도적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는 〈보살행품〉과 〈견아촉불품〉이다. 중생이 부처라는 사실만으로 그들에게 법으로써 공양을 올리는 〈법공양품〉과 미륵보살의 서원을 통해 대승의 진리에 희망과 꿈을 가지고 신해행증하면 모두 다 부처를 이룰 것이라는 유마경을 세상에 널리 알리자는 〈촉루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속)

〈서울 반야사 주지〉

'경청' 에서 지혜가 나온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㉒ 불가의 세가지 지혜

단단한 지혜의 뜻을 알기 위하여 불가에서 흔히 말하는 세 가지 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문혜(聞慧), 즉 (귀로) 들어서 생기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 사혜(思慧)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즉 심사숙고하여 얻어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마음을 닦아서 얻은 지혜인 수혜(修慧)가 있습니다. 분별심이 사라지면 마음속의 지혜광명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수혜란 마음 닦아 드러난 지혜광명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문혜는 보고 들어서 생겨난 지혜, 말하자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여 얻어진 지혜를 말합니다. 학교에서 얻은 지식으로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런 지혜는 문혜인 것입니다. 각종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얻은 지혜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에 맞닥뜨렸을 때,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에 비하여 해결능력이 뛰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 · 고등학교 출신보다 대학 출신을 우대하는데, 이는 대학 출신이 중 · 고등학교 출신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에서 얻은 지혜, 즉 문혜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식과 정보를 통하여 얻어진 문혜는 단단한 지혜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혜는 주위에 수많은 난제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문혜가 보고 들어서 얻어지는 지혜라면, 사혜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얻어지는 지혜입니다. 즉 난제의 해법을 자꾸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며, 또 사람들과 난제에 대한 해법을 경청하고 논의하여 얻어진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볍게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을 더 많이 제거하게 되어 문혜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해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즉 난제의 해법을 계속 생각하는 자세, 사람들로부터 난제의 해결의 경험을 경청하는 자세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제거하므로 더욱 더 보편적인 지혜가 드러날 수 있게 하는데 이로부터 얻어지는 지혜는 문혜보다 더 차원 높은 지혜가 될 것입니다.

수혜는 마음의 분별심을 소멸하고 탐진치를 닦아서 생긴 지혜입니다. 현재 의식인 마음의 분별심을 끊임없이 바쳐 사라지게 되면, 마음속 깊이 내재된 선입견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선입견(이것을 전생의 업장이라 합니다.)이 사라지면 마음 깊숙이 숨겨진 본연의 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드러난 지혜의 범위는 심사숙고하여 얻은 사혜보다 더욱 넓고 깊습니다.

그러나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 대부분은 사람 속을 알지 못합니다. 한 길 사람 속을 아는 지혜, 이것은 문혜로도 아니 되고, 사혜로도 아니 됩니다. 오직 마음을 닦고 탐진치를 소멸하여 얻는 지혜인 수혜만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마음을 닦아 분별심을 제거하면 일차적으로 자신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속마음도 무엇인지 알게 되는 원리 때문입니다.

탐진치를 닦아 수혜를 체험한 경영자라면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알게 되므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여 회사를 슬기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와 능력은 거의 신(神)의 영역에 접근하는 뛰어난 능력이요, 지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삼계유심 만법유식 '이 뭣고'

일체법은 모두 여래장심을 따라 일어나 망념의 분별로 나왔으므로 일심은 법계총상 자체이며, 본래 불생(不生)하여 끝내 한 법도 없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일체법은 모두가 망념을 따라서 의(意)가 일어나 나왔을 뿐, 일심(一心)의 자체가 일체법으로 나온 것은 아니며, 또한 세간의 일체경계와 차별상은 모두가 중생이 무명망심(無明妄心)을 의지해서 현재에 안주하고 미래의 종자(種子)를 지니게 된다.

시고(是故) 일체법(一切法) 여경중상(如鏡中像) 무체가득(無體可得) 유심허망(唯心虛妄) 이심생즉(以心生則) 종종법생(種種法生) 심멸즉(心滅則) 종종법멸고(種種法滅故)라,

"그러므로 일체법은 거울 속에 나타난 허상과 같아 얻을 만한 실체가 없듯이, 삼계(三界)도 심의식(心意識)의 허망한 망상으로 일어났을 뿐이다. 왜냐하면 일심이 무명으로 나오면 갖가지 법이 따라 나오고, 일심의 무명이 사라지면 갖가지 법도 따라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식은 "모든 현상은 오직 마음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일체유심조도 일체가 심식(心識)에 의지해 존재하고 작용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불교의 근본이며 기본이다. 삼라만상 우주 땅, 사람들이 몽땅 의식으로 빚어낸 허망한 업(業)의 그림자일 뿐이다.

생사 또한 하나의 환상(幻想)이다. 진실(眞實)은 불생불멸(不生不滅)이다. 또한 묘각(妙覺)의 여명(黎明)으로 생긴 허망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식심(識心)이다. 이 식(識)이 육근에 붙어 육근(六識)이 되는데 심왕(心王)의 육문성(六門城)을 점령하는 마왕(파순)과의 전쟁이 수행이며, 육문성곽(六門城郭)을 옛날 화살로 아무리 쏘아봐야 성벽을 넘어 마구니를 물리칠 수 없는 것이다.

"육근중 두루 통하는 하나의 의식을 택해 감상 따라 흐르는 식심을 두루 원만한 각성으로 몰입시키면 마침내 정각을 이루리라 했는데, 그 유일한 수행법 역시 '이 뭣고' 이다."

원자폭탄으로 성안을 바로 폭파시킬수 있는 최신 무기가 바로 '이 뭣고' 이며, 찰나간 한생각의 뿌리를 '이 뭣고' 로 잘라 버림과 동시에 생각 이전의 근본자리를 자동적으로 '이 뭣고' 로 관(觀)하게 되는데, 이것이 회광반조이며 마구니를 항복받아 업장을 소멸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만법유식(萬法唯識)' 이란 지금 현재 면전에 전개된 온갖 법이 심식으로만 헛되이 지어진 것이므로,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고, 즉 무자성(無自性)으로 자체성이 없고 진심(眞心)의 거울에 비친 망념(妄念)의 그림자일 뿐이며, 꿈과 같고 환(幻)과 같다는 것이니,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다.

〈수능엄경〉에 보면 제 8장식(藏識)인 아타나(阿陀那)란 미세한 식(識)이 수만 생의 인습(因習)으로 굳어진 것이 식심이다. 그 것으로 일어나는 번뇌망상이 마치 폭포처럼 흐른다. 그래서 육근중 두루 통하는 하나의 의식을 택해 감상을 따라 흐르는 식심을 두루 원만한 각성으로 몰입시키면 마침내 정각을 이루리라 했는데, 그 유일한 수행법 역시 '이 뭣고' 이다.

'심생즉종종법생(心生則種種法生) 심멸즉감분불이(心滅則龕墳不二) 삼계유심(三界唯心) 만법유식(萬法唯識) 심외무법(心外無法) 호용벌구(胡用別求)' 이라.

이 말은 마음이 생기는 까닭에 여러 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니 토굴과 분묘가 둘이 아니고, 마음밖에 일체법이 없는데 무엇을 밖에서 구할것이 있을까, 어젯밤 마신 감로의 물이 아침에 보니 해골 바가지에 담긴 것을 보고, 토해내면서 깨친 원효대사의 오도송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제 8회 반야학술상 공모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제 8회 반야학술상을 공모합니다.
불교학 및 불교문화 우수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반야학술상은
매년 저술상과 논문상 두 분야를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불교학 및 불교문화연구자들의 많은 추천과 응모 바랍니다.

저술상
응모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출간된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창의적인 저서 및 역서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저자 1명에게 500만원 지원

논문상
응모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국내외 불교학, 종교학 및 철학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불교학 및 불교문화 우수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저자 1명에게 500만원 지원

■ 추천 및 응모 마감 : 2018년 7월 15일 (우체국 소인 확인된 것까지)
■ 추천 및 응모방법은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banyaresearch.org)를 참조 바람.
■ 시상일 및 장소 : 추후 공지
■ 문의처 : (사) 반야불교문화연구원 구자상 (010 · 4731 · 3471) 우명주 (010 · 9027 · 5193)

(사) 반야불교문화연구원장